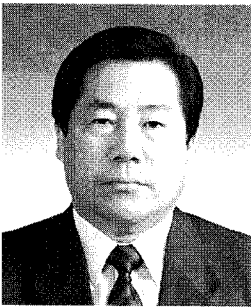


# EU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「땀납사용금지」 추진



글 · 방오균 과장  
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

○ EU는 “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(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; WEEE)”을 감소시키기 위한 EC-Directive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.

○ 현재 동 지침(안)은 다음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.

## 〈적용 대상〉

- 가정용 전기전자기기
- 정보기기
- 통신기기
- 라디오, TV, 음향기기
- 조명설비
- 의료기기
- 감시 및 제어기기
- 장난감
- 전기전자 도구
- 자동판매기 등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

## 〈주요규제내용〉

- 2004. 1. 1부터 다음 재료의 사용을 금지한다.

- 납
- 수은
- 카드뮴

- 폐기물 분리수거
- 폐기물 처리
- 복구 등

○ 동 지침(안)이 통과될 경우, 2004. 1. 1부터는 유럽지역에서 유통되는 전기전자제품에는 뿔납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, 유럽지역의 국가들은 물론 미국, 일본도 동 지침(안)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.

- 관련업체들이 “뿔납 사용량은 총 납 소모량의 1%에 불과하므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”고 주장하자, EC는 오히려 규제범위를 확대하여 전기전자제품뿐만 아니라 타 분야 제품에 사용되는 납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. 규제범위가 확대될 경우, 뿔납규제에 대한 적용 시기도 늦춰질 것이라는 일부 관측이 있기는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다.
- 납 사용금지 등 설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항들은 EC 기본 지침에 포함되기 보다는 별도의 지침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으며, 이 제안에 대해 EC 하부위원회 자문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.

○ CENELEC(유럽전기기술위원회)에는 동 지침이 통과될 경우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유럽표준 3000여 종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동 지침의 이행을 도울 수 있는 표준 또는 도구개발에 대해서도 조사하자는 움직임이 있다.

○ EU의 뿔납규제는 어떠한 형태로는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, 2004년부터 유럽수출 경쟁력은 새로운 접합기술 개발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는 곧 업체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다.

- 현재 뿔납규제에 대한 대책을 완벽히 마련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유럽, 미국, 일본 등의 대기업들은 대책마련에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.
- 영국의 경우, 업체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협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,
- 일본 「Sony」의 경우, 거의 매일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기술개발 진도를 점검하고 있다고 한다.

· 「Sony」의 경우, 동선이나 주선선 등을 땀납 대응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으며, 이러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접합온도가 매우 높아져 접합되는 부품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, 현재는 온도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작성 등의 대책을 연구중이라고 한다. (설계, 생산 공정 등 전반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므로 문제해결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.)

○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되, 새로운 접합기술개발, 제품 설계변경, 이에 따른 생산시설교체, 시험시설 및 방법 변경 등 대책이 매우 복잡하고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, 업계·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대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.

- EU의 동향을 미리 관련업계에 알려 경영에 참고토록 하고,
- 새로운 접합기술(용접설비, 가공기술 등)을 개발하여 업계에 보급
- 관련 업체에서는 새로운 접합기술에 맞도록 제품설계 변경 및 이에 따른 시설교체 추진
- 표준화기관과 시험기관들은 새로운 시험방법 개발 및 표준화로 업계 지원 등

○ 장기적으로 볼 때, EU의 규제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, 이러한 규제는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다.

## 전기용품종합시험연구소의 이사회 소식

협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『전기용품종합시험연구소』의 이사회가 지난 2월 22일 한국소비자보호원 청사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. 변봉덕 회장님을 비롯하여 김진태 소장님 및 여러 이사님이 참석한 가운데 순조롭게 이사회가 막을 내렸습니다.

이 자리에서 김진태 소장님은 일신상의 이유로 『전기용품종합시험연구소』의 소장직에 대한 사임의사를 표명하셨고 지난 3월 2일 사표를 서면제출하셨습니다.

김진태 소장님의 자진 사퇴와 함께 공석이 된 후임 소장직은 현재 산업자원부에 추천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. 산업자원부에서 후임자를 추천하게 되면 『전기용품종합시험연구소』의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후임소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.